제8강 소설의 시대가 열리다

1. 이탁오李卓吾, 경계를 넘나든 자유인

명나라 말기(1602), 혹세무민 죄로 감옥에 갇혔던 75세의 이탁오, 스스로 생을 마감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읽었지만, ‘성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공자를 존숭했지만 공자에게 무슨 존중할만한 것이 있는지 몰랐다. 속담에 이른바 난장이가 굿거리를 구경하는 것과 같아, 남들이 좋다고 소리치면 그저 따라서 좋다고 소리치는 격이었다. 나이 오십 이전까지 나는 정말 한 마리 개와 같았다.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어대자 나도 따라 짖어댄 것이다. 왜 그렇게 짖어댔는지 그 까닭을 묻는다면, 그저 벙어리처럼 아무 말 없이 웃을 뿐이었다.”(「성인의 가르침에 대해(聖敎小引)」)

“아아! 나는 지금에서야 공자를 알게 되어, 더 이상 예전처럼 무턱대고 짖는 개가 아니다. 예전의 난장이가 늙어서야 마침내 키가 제대로 자라게 되었다.”

64세에 『분서焚書』 출간. 이단의 언어로 가득 찼다고 해서 유학자들의 비난 받음.
‘동심童心’을 중시-->
“동심이 가로막히면,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이 진심에서 나오지 않고, 정치에 참여한다 해도 그 사람이 펼치는 정사에 뿌리가 없고, 저술을 한다 해도 그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적인 미美가 갖추어지지 않음으로써 소박하고 진지한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하여, 단 한 마디라도 진리에 부합되는 말을 찾아보려고 해도 끝내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심이 이미 가로막혀, 외적인 견문과 도리가 그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다.”(「동심설童心說」)
-->그는 『논어』, 『맹자』를 진리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음. 고대 성인의 말씀만이 금과옥조는 아니니, ‘동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요즘 것이라고 해도 훌륭하다고 했음. 『수호전』을 ‘발분發憤’의 저작이라며 극찬.
개인의 자유, 욕망 등에 대해 긍정의 시선을 보냈고, 『서상기』와 『수호전』 등의 소설작품에 찬사를 보냈음. 그러한 자유로운 정신은 ‘이야기’의 시대를 여는 전주곡이 되었음. 양명학의 ‘심학心學’은 인간의 자유로운 주체성을 회복하고 욕망의 긍정을 주장했음. 말하자면 인간이 도덕적 실천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인간성의 해방과 자유로운 광자狂者정신을 주장했던 양명좌파의 사상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통치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으나 이런 사상적 배경 하에서 명나라 때의 장편소설들이 나올 수 있었음.

“육경이나 『논어』·『맹자』 등에 담긴 말은 그 당시 역사를 편찬한 관리가 지나치게 높이고

칭찬한 말이거나 또는 그 당시 신하가 극도로 찬미한 말이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제자나 어리석은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기억으로 더듬어,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거나, 뒤의 내용은 있는데 앞을 빠뜨리고, 그저 자기 소견에 따라 되는대로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것일 뿐이다. 후학들이 이것을 판별하지 못하고 성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여, 지목하여 경전(經典)으로 결정하였으니, 그 중의 태반이 성인이 한 말이 아님을 그 누가 알겠는가?"(「동심설」)

--> 장자에 나오는 제 환공과 윤편의 대화를 떠올리게 함. 자유로운 지식의 세계에 유・불・도의 경계란 없다고 생각함.

"보는 것의 길고 짧음을 따지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그저 여자가 보는 것은 짧다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네. 그러므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는 것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보는 것에 길고 짧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남자가 보는 것은 모두 길고 여자가 보는 것은 모두 짧다고 한다면, 이 어찌 말이나 되겠는가?"(「여성의 식견이 짧아서 도를 배울 수 없다는 말에 답한다(答以女人學道爲見短書)」)- 여성 제자 매담연梅淡然

2. 요괴가 사람보다 낫다-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志異』

영화 『천녀유혼』은 『요재지이』에 나오는「섭소천聶小倩」이야기를 참고.
영화「화피畵皮」도 『요재지이』에서 나왔음. 짤막한 이야기 모음집이면서도 한없이 매력적인 환상으로 가득한 책, 그러면서도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책이 바로 『요재지이』.

포송령-산둥성 서부 쯔보[淄博]시 출신. 과거급제 못함. 청나라 때 과거시험 자체가 팔고문八股文이라는 형식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붙을 수가 없었음. 과거시험 자체가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서 시험관이 시험지를 제대로 채점할 수 없는 무식한 자들인 경우도 많았음. 진사가 되지 못한 포송령, 소설쓰기에 집중. 40세에 마침내 『요재지이』 초고를 완성함. 포송령고거故居에 1962년 궈모뤄[郭沫若]가 방문하여 남겼다는 대련對聯이 있음.

"귀신과 요괴를 묘사한 것이 사람을 묘사한 것보다 한 단계 높으며,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를 풍자한 것이 뼈 속에 스며들 정도이다(寫鬼寫妖高人一等, 刺貪刺虐入骨三分)."

431편의 단편 작품집인 『요재지이』에는 귀신은 물론, 요괴들과 꽃의 정령, 여우 요정 등 별별 기이한 존재들이 다 등장함. 포송령이 살던 시대의 포악한 관리나 부패한 과거시험관들, 돈 주고 관직을 사는 인간들과 비교해보면 진심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여우나 꽃의 정령들이 더 낫다는 것

이니, 인간이 귀신들보다 못하다는 풍자정신이 들어있음. 기본적으로 신화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작품.

「섭소천」- “내 한평생 아내 말고 다른 여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영채신寧采臣의 인품에 반하여 그를 따르는, 18살에 죽은 여인 섭소천.
--> “일 년이 넘는 세월을 모셔왔으니 응당 저의 사람됨을 아실 것입니다. 무고한 나그네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던 까닭에 아드님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저에게 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영 공자께서 광명정대하시니 하늘과 사람의 흠모를 한 몸에 받으실 것이므로 저는 그저 그분을 돕고 또 의탁하고 싶은 뿐입니다.”

「청봉靑鳳」- 주인공 경거병耿去病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청봉에게 반해 여우 가족인 청봉 집안과 관계를 맺어 그들을 돌보면서 잘 살아가는 이야기.

「화피」-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요괴. “얼굴색이 푸르뎅뎅하고 톱니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돋은 흉측한 귀신”이 사람 가죽에 갖가지 빛깔로 그림을 그려 아름다운 여자 모습을 만든 다음 그것을 뒤집어쓰고 여자로 변신, 주인공 왕생을 꼬여내어 잡아먹음. 왕생의 아내가 도사에게 남편을 살려낼 비방을 묻고, 저잣거리 미치광이에게 물어보라는 대답을 듣게 됨. 아내는 미치광이가 뱉어낸 가래침까지 받아먹는 수모를 감내하며 마침내 남편을 살려내게 됨.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영화 「화피」(2008)에서 새로운 스토리로 다시 태어남.

「성명」- 명나라 때 이후 황실의 큰 오락이었던 귀뚜라미 싸움. 각 지역마다 최고의 귀뚜라미를 잡아 바치곤 했는데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음. 글만 읽던 서생인 성명. 마을의 귀뚜라미 모집책을 맡음. 고생 끝에 구해온 귀뚜라미를 아들이 죽게 함. 겁이 난 아들, 우물에 뛰어들고,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 황제에게 바친 귀뚜라미가 알고 보니 아들의 화신.

--> “천자는 우연히 한 가지 물건을 쓰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아하는 자들은 그 물건을 거둬들이는 일을 제도로서 정한다. 거기다가 관리들의 탐욕과 학대까지 더해지면 백성들이 아내를 전당잡히고 아이들을 파는 일이 끝없이 생기게 된다. 천자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모든 백성의 생명과 관계되니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위선과 가식을 걷어버려- 오경재(吳敬梓: 1701-1754)의 『유림외사儒林外史』

인간들이 사는 현실에 뿌리를 둔 풍자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소설도 청나라 때에는 줄지어 나옴.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을 까발린 작품인 『유림외사』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

오경재- 23세 때에 수재가 되기는 했으나 이후 과거시험에는 뜻을 두지 않았음. 36세 때에 안휘 순무가 '박학홍사과'라는 시험을 치르도록 추천해주었지만 거절. 가난했으나 자신이 좋아하는 글 쓰기를 하다가 54세가 되던 해, 양주揚州에서 친구와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한번 인생 양주에서 끝내도 좋으리!"라는 장호張祜의 시를 읊고 돌아와 죽었다고 함.
'지식인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책. 당시 지식인들의 위선과 탐욕에 대한 엄청난 풍자가 들어있음. 옴니버스 스타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편마다 독립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나 등장인물들이 서로 이어져 있음.
제3회「주 학정은 학생 속에서 인재를 뽑고 호 백정은 경사에 소동을 일으키다(周學道校士撥眞才, 胡屠戶行凶鬧捷報」)-
20살 때부터 시작하여 20여 차례나 과거시험을 봤지만 합격을 하지 못했던 54세의 범진范進이 주인공. 어느 해에 주진周進이라는 시험관이 나이 든 범진이 불쌍해 답안지를 거듭 읽어본 결과 내용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수재 합격을 시켜줌. 지방시험, 즉 향시鄉試에 응시하러 마을을 떠나야 하는데 노잣돈이 없어 갈 수가 없었음. 노잣돈을 부탁하는 사위에게 장인이 비웃음.

"수재님이 되더니 주제넘게 미꾸라짓국 먹고 용트림을 하려 하는구만! 내 듣건대 수재가 된 것도 자네의 문장이 훌륭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학정 대감이 자네 나이가 많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마지못해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하두만. 그런데 이번엔 어리석게도 거인님이 되고파 하는구만! 거인님이란 모두 하늘이 내린 문곡성(文曲星)일세! 보지 못했나. 성내 장씨 댁의 거인님들 말일세. 그들이 모두 만석꾼들이며 얼굴이 너부죽하고 귀가 크게 생기지 않았나. 자네같이 입이 뾰족한 잔나비 상을 오줌이나 싸 놓고 비춰보게. 그 못난 주제에 백조의 방귀를 잡수시겠다고. 그런 생각일랑 아예 집어치우게."
몰래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뜻밖에도 붙어 거인擧人이 되었음. 너무 기뻐서 정신을 놓은 범진. 장인 호백정이 정신 다시 돌아오게 함. 장인은 사위를 '학식도 높거니와 용모도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주며 큰 집도 주었음.
"사람이 태어나서 이 일을 제외하고 신세를 고칠 두 번째 일은 없다. 책 속에 황금으로 지은 집이 있고 천 종의 양곡이 있으며 옥 같은 미인이 있다"

「엄공생과 엄감생」-마을의 토호이면서도 수전노인 엄공생. 동생 엄감생도 수전노. 돈이 아까워 약도 먹지 않고 있다가 죽어가는 엄감생,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임. 등잔의 심지 하나를 끄라고 하는 메시지.

형 엄공생, 배 타고 가다가 배 안에서 멀미가 나 운편고雲片糕를 조금 먹고 나아졌음. 먹다 남은 값싼 운편고를 뱃전에 슬쩍 놓아두고 노를 젓는 노잡이가 그것을 집어먹는 것을 모른 척 함.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여 뱃삯을 내어야 할 때, 엄공생이 노발대발. 뱃삯을 떼어먹는 치사한 부자.

-->『요재지이』를 쓴 포송령이 작품의 말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은 것에 비해 오경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음. 그저 상황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왕옥휘의 딸이 남편을 따라 죽다(王玉輝女兒殉夫)」-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열녀와 그들을 대하는 지식인들의 위선에 관한 이야기. 왕옥휘는 가난한 수재, 시집간 셋째 딸이 과부가 됨. 아버지는 딸에게 열녀가 되어 청사에 이름을 남기며 죽을 것을 권유. 단식 여드레 만에 딸이 굶어 죽자 "잘 죽었도다! 나는 장래에 그처럼 좋은 명분으로 죽을 수 없을까봐 두려울 뿐이다"라고 말함.
송나라 이후 "인간의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도리에 따른다(去人慾, 存天理)"는 대원칙 하에 살아왔던 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이 "굶어죽는 것은 작은 일이요, 절개를 잃는 것은 큰 일(餓死事小, 失節事大)"이었던 것. 딸이 죽자 마을의 선비들이 몰려와 추모 의례를 지내는데 왕옥휘를 상석에 앉도록 권유하며 "그대에게 이처럼 훌륭한 딸이 있다니, 오륜五倫이 살아있는 듯하네"라며 칭찬. 이때가 되어서야 왕옥휘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짐.

--> 서양 중세의 마녀들은 드러난 폭력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했고 화형에 처해졌지만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의 열녀들은 드러나지 않은 폭력에 의해 죽었음. 서양의 마녀들은 추한 이단자들이라는 오명을 얻었으나 중국의 열녀들은 달랐음. 세상은 온갖 아름다운 언어로 그녀들을 칭송하며 화려하고 장엄한 열녀비를 세워주었음. 하지만 마녀나 열녀 모두 나타난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폭력의 희생자라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겠음. 오경재는 그러한 '폭력'의 본질에 대해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왕옥휘의 눈물로 풍자한 것.(「마녀와 정절녀」, 김선자)

붉은 누각의 꿈같은 날들- 조설근曹雪芹의 『홍루몽紅樓夢』
중국 전통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소설.
작가 조설근의 할머니는 청나라 강희제의 유모였고 할아버지인 조인은 강남직조. 옹정제가 황제가 되고난 후 집안이 급격하게 몰락. 조설근은 10대 나이에 북경으로 와 무척이나 고통스런 생활을 하게 됨. 그도 역시 북경의 골목길에 거주하면서 10년 세월에 걸쳐 다섯 번이나 내용을 수정하면서 『홍루몽』을 완성.
'홍루'는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집을 의미. 『홍루몽』의 공간적 배경은 가씨賈氏 집안, 대관원大觀園이라는 거대한 저택. 이 거대한 저택을 소유한 집안의 대를 잇는 인물이 종손 가보옥賈寶玉. 집

안에서 가장 큰 어른인 사태군은 가보옥을 설보차薛寶釵와 맺어주고자 하지만, 가보옥이 사랑했던 여인은 임대옥林黛玉. 임대옥과 가보옥이 서로 사랑을 키워가는 대목에서 등장하는 '꽃을 묻어주는(葬花)' 이야기는 『홍루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

꿈처럼 몽롱하게 화사한 꽃들이 피어있는 봄날, 가보옥은 복사꽃 핀 나무 아래 돌 위에 앉아 『서상기』를 읽음. 『서상기』는 앵앵과 장생의 사랑이야기가 적힌 책.

"책 속에서 막 '붉은 꽃잎이 떨어져 수북이 쌓여있네'라는 구절을 보던 중인데 마침 한 줄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나뭇가지를 흔들어 복사꽃을 거의 절반이나 떨어뜨렸다. 꽃잎은 보옥의 몸과 책과 그리고 바닥 위에 어디라 할 것 없이 가득 쌓였다. 보옥은 꽃잎을 털어내려고 했지만 또 그 꽃잎을 밟을까 저어하여 가만히 손으로 꽃잎을 받아 물가에 이르러 연못 안에 뿌렸다."

그때 대옥이 꽃잎 주머니가 달린 긴 꽃삽을 메고 손에 꽃비를 들고 옴. 꽃잎을 물에 갖다버리는 보옥에게 대옥은 꽃잎을 쓸어 주머니에 담아 흙속에 묻어주자고 함. 꽃잎을 묻으러 가기 전에 대옥은 보옥이 읽던 책인 『서상기』를 받아들고 단숨에 읽어내려 감. 그러나 보옥이 할머니에게 불려가고, 홀로 남은 대옥이 꽃과 관련된 다양한 노래 구절을 듣는 대목은 그녀의 슬픈 죽음을 암시하고 있음.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라는 『홍루몽』의 메시지를 전달.

꽃다운 그 모습 如花美眷
흐르는 이 세월 似水流年

흐르는 물, 지는 꽃잎 모두 무정하여라 水流花謝兩無情

물 흐르고 꽃잎 지면 봄날도 지나가네 流水落花春去也
하늘나라 저만치에 인간세상 이만치 天上人間

보옥의 할머니는 임대옥의 몸이 약하다고 하여 설보차를 보옥의 짝으로 점찍음. 얼굴을 가린 신부가 임대옥인 줄로만 알고 혼인을 했던 가보옥은 그녀가 대옥이 아닌 설보차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 병에 걸리며, 대옥은 보옥의 혼인 소식에 그만 죽음. 그들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어긋난 이후 가씨 집안의 몰락이 시작되며 집안을 가득 채웠던 여인들의 화사하고 밝은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집안은 깨져버림. 보옥은 과거시험을 핑계대고 먼 길을 떠남.

『홍루몽』은 일종의 대하소설. 세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기본 틀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

은 인간들이 그물처럼 촘촘한 관계망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또한 청나라 시절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음. 대화를 나눌 때 『홍루몽』을 언급하지 않고 시서詩書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정도로 당시 귀족 가문의 음식이라든가 건축물, 정원과 가재도구, 의상, 수레와 가마 등을 비롯해 공연예술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활상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

--> '홍학紅學'

==========

'진정眞情'은 『홍루몽』에서도 중요한 주제. 『요재지이』도 그랬고 『백사전』도 그랬듯이 『홍루몽』 역시 인간의 참된 마음을 말하고 있음. 부귀공명이나 탐욕 따위는 인간의 '진정'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님. 『유림외사』도 첫 번째 이야기에서 부귀공명을 우습게 여기는 참된 지식인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 이탁오가 꿈꾸었던 '동심'을 가진 인간이 바로 그런 인간.

'진정'은 인간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꽃과 나무 등의 식물 사이에도 존재. 우주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심지어 생명 없는 것들까지 하나의 '진정'으로 연결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리고 그런 '진정'을 가진 인간이 많아야만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 된다고, 혼탁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갔던 그들은 굳게 믿었음.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 '진정'을 말하고자 했던 것. 시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던 그들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이상의 내용은 『문학의 숲에서 동양을 만나다』(김선자, 웅진지식하우스, 2010)에서 발췌함)